

## 다케시마의 날 제정 抗議 방문

### 대한민국 독도수호 전국연대 임원

올해로 두 번 째로 열리는 독도의 날(자칭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반대하는 대한민국 독도수호 전국연대(의장 최재익) 소속 임원 4명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2월23일 출국하여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시마네현 청사에서 열린 시위활동을 벌였다.

2월22일이던 기념행사 자체를 많은 사람들의 참석을 유도키 위해 2월24일 토요일로 실시한 이날 기념행사장에서 독도수호연대 임원들은 최재익 의장의 규탄사와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의 강력한 시위 활동을 벌였다.

또 일본어로 쓴 '독도 올바르게 알기'라는 44페이지로 된 책자 약 500여권을 일본국민들에게 나누주는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우파들로 구성된 약 2,000여명의 극우파들과의 몸싸움도 있었으며 그들의 저지와 방해가 많이 따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독도는 한국 땅' '대한민국 만세' '침략국 일본정부는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날 시마네현 청사에서 결의문을



일본 시마네현에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독도수호 전국연대 임원 4명이 2월2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시마네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낭독하고 스미다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하는 항의서를 현청 관 재과장을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4명은 독도수호 전국연대 최재익 의장과 환경협회 김재현 회장, 수중탐사협회 황대영 회장, 다산사상을 실천하는 경제인연합 이흥우 위원장 등이다.

한편, 항의방문에 나선 대한민국 독도수호 전국연대 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한반도 침략사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라 ▶일본정부는 독도강탈음모 즉각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독도의 날 즉각 폐기하라 ▶일본정부는 역사왜곡 즉각 시정하라 ▶독도의 날 제정 주도한 일본정부의 하수인 스미다 지사는 대외 각성하라고 요구했다.

이흥우 조사위원회 총무 hongwooc64@hanmail.net

##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⑥ 멧기름때새(Northern Lapwing)

### 인심 좋고 물 좋은 포천 찾은 겨울철새

지난 2월2일 포천천 탐조에 서 만난 멧기름때새를 소개합니다. 우리고장을 흐르는 포천천은 소홀을 축척고개에서 발원하여 한탄강, 입진강을 거쳐 서해로 흘러가는 우리 고장의 생명줄입니다.

이번 탐조는 송우웨딩홀 부근의 이가팔교에서 시작하여 군내면 유암교에 이르는 약 6km에 걸친 구간에서 실시 되었는데, 여기서 발견된 새는 26종에 이르며 그 숫자는 흰배검둥오리를 비롯하여 청둥오리 쇠오리, 비오리, 원앙 등 수면성 조류가 약 500여 마리이며, 그의 박새, 멧비둘기, 백로, 왜가리 및 각종 물새류 등 다양한 개체가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규모가 큰 다른 지역의 철새도래지에 비하면 그 숫자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나 포천천의 지리적인 특성과 그 규모에 비해서는 결코 적지 않은 종과 마릿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포천의 시조(市鳥)인 원앙이 50여마리가 관찰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암교 부근에서 망원경과 필드스카프로 관찰하는 도중 우리 탐조대 일행의 눈을 의심케 하는 멋진 새가 발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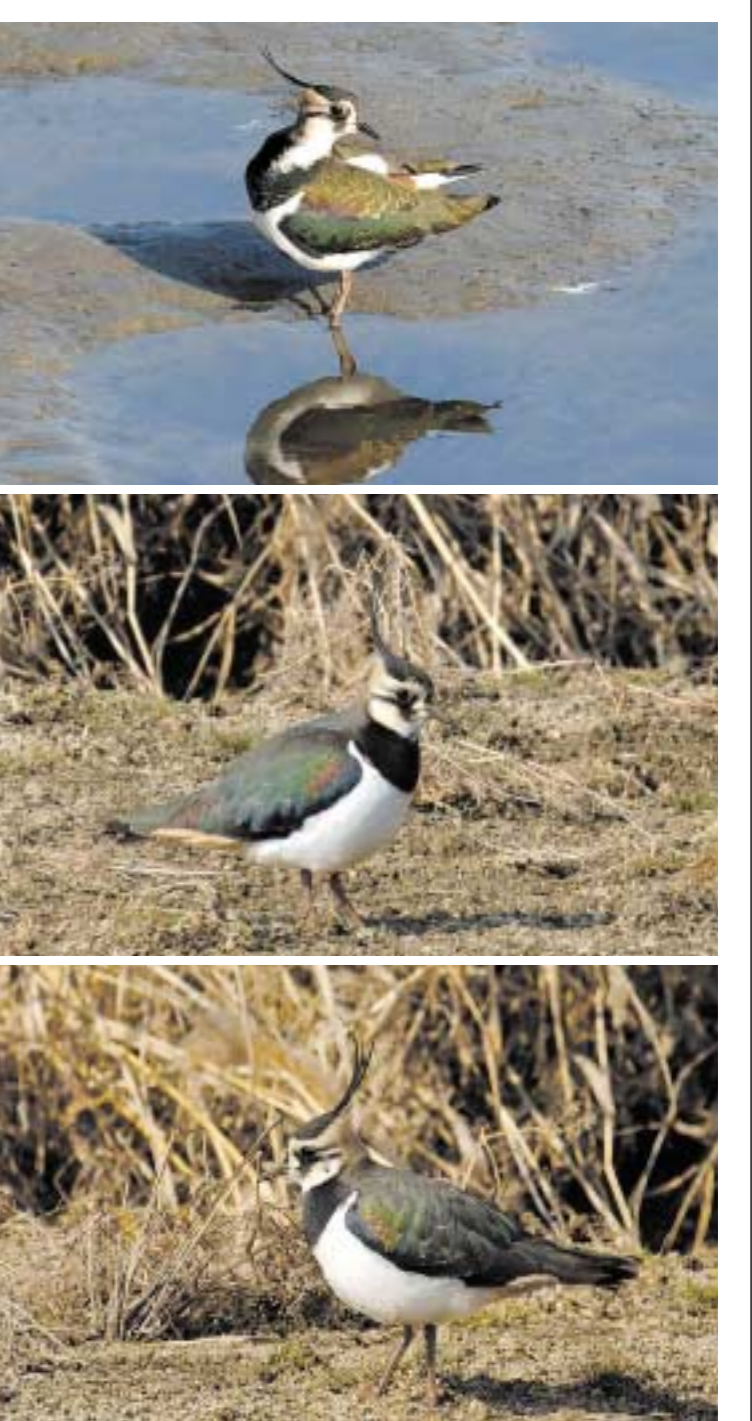
등과 날개는 녹색광택이 나며 머리에는 멋진 깃을 달고있는 멧기름때새 2마리가 우리 앞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우리일행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멧기름때새는 물가의 모래톱에서 일발 오르발을 번갈아 가며 땅을 두드리는 동작을 자주 하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런 모습이 물에서 묻은 물기를 털어 내려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더니 몇 발자국 달려서 먹이를 잡아먹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땅의 진동을 유도해 지렁이 같은 먹이감이 꿈틀대는 것을 사냥하는 것 같더군요.

새들에게도 먹이사냥을 위한 이러한 지혜가 그동안 터득한 생존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멧기름때새는 저 멀리 유라시아 북부에서 번식을 하며, 겨울에는 유럽 남부와 북아프리카, 인도, 미얀마, 타이완, 일본 및 한국에 내려와 겨울을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남의 주남저수지, 속초, 제주도, 낙동강 하구의 갈대밭 등지에서 관찰됩니다.



2007. 2. 2. 포천천에서 촬영

날아가는 날개 짓이 다른 새들 보다는 느릿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동작에서 잔물결 치는 날개라는 뜻의 랍윙(lapwing)이라는 영어 이름이 유래하였고, 우리나라 이름인 멧기름때새는 관우(冠羽)가 멧기름처럼 머리에 멋지게 생겨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머리 뒷 깃이 너무도 아름답고 수려하여 마치 고구려 수렵 벽화도의 당당한 고구려인을 연상시 유럽 남부와 북아프리카, 인도, 미얀마, 타이완, 일본 및 한국에 내려와 겨울을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남의 주남저수지, 속초, 제주도, 낙동강 하구의 갈대밭 등지에서 관찰됩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점차 그 숫자가 줄

어가기 시작하여 제한된 지역에만 적은 무리만 찾아와 월동을 하게 되었지요. 이번 탐조에서 발견된 멧기름때새는 작년 2월경에도 같은 지역에서 목격된 바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고장 포천이 인심 좋고 물 좋다고 저 멀리 유럽에 살고있는 새들에게까지 소문이 난 것이 아닌가 하고 잠시나마 기분 좋은 생각을 해 봅니다.

포천생태연구회 회장 이상일 017-705-0994

## 사업번창 · 萬事亨通 기원

### 포천신문 골프회 2007년 첫 정기라운딩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박노현)가 2월22일 포천아도니스CC에서 2007년 첫 정기라운딩을 갖고 회원간의 친목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보다 1팀 늘어난 24명의 회원으로 새롭게 출발한 이날 대회는 첫 홀을 안개 속에서 시작하여 18홀 경기를 통해 기량을 선보이며 우정의 라운딩을 가졌다.

경기후 11차 월례회의에서 박노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7년 회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상호간의 신뢰와 단합으로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골프회가 되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 사업번창하고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효열 상임고문은 인사말을 통해 "2007년 회원으로 참가하신 회원여러분과 기존 회원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한다"며 "포천신문 골프회가 실력향상은 물론 품격 있는 클럽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포천신문 골프회 초대 회장으

로 수고해 온 한희준 고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감사패를 받은 한희준 고문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로 회장직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포천신문 골프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양종진 ▶준우승 김영복 ▶메달리스트 황광익 ▶근접상 한희준 ▶장타상 성승모 ▶행운상 강경만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골프회 박노현 회장이 2006년 창립과 더불어 초대회장으로 수고해온 한희준 고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동안 노고를 치하했다.



포천신문골프회 2007년 첫 라운딩에서 양종진 회원(본지 조사위원)이 핸디보다 12타를 줄여 우승을 차지했다.(사진은 박노현 회장과 함께)

### 꽃배달 서비스

☘ 우치는 소홀음

이동교리281-14  
부인타사거리에서  
송우리쪽  
130m  
우측대로변  
풍산그라비아옆

☘ http://www.sunghaflower.co.kr

전국.해외꽃배달서비스 080-543-1889

011-758-9088

### 자향

www.wellbeingcha.com  
031-543-1883

www.wellbeingcha.com

011-9750-1883

☘ 은남보이차 전문

천연무공해식품  
무량산다예종  
원산지 제품 도소매

"자향다호회" 회원우대

연중무휴시음및  
다도시연회

☘ http://www.wellbeingcha.com

## 은남보이차